

'현우경' 이야기 (5)

지혜로운 며느리

32명 아들 전생의 업 때문에 죽음 당해

옛날 슈라바스티 왕국에 리기미라는 부자가 살았다. 리기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아들만 장가를 보내지 못했다. 그는 막내아들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친구인 바라문에게 부탁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죽기 전에 막내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꼭 보고 싶소. 자네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으니,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감을 소개시켜 주었으면 좋겠소."

바라문은 특차시리국에 머무르다 우연히 길을 지나는 비사리라는 여인을 발견했다. 비사리는 외모가 단정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바라문은 비사리의 아버지를 찾아가 리기미의 막내아들과 혼사를 치룰 것을 요청했다. 비사리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혼사를 허락했고, 결국 둘은 혼사를 치르게 됐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슈라바스티와 특차시리국 왕국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전쟁 직전까지 이르렀다. 특차시리국의 왕은 슈라바스티 왕국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말 두 마리를 보내, 어미와 새끼를 구분해 보라고 요구했다.

슈라바스티 왕국의 왕은 신하들을 불러 어미와 새끼 말을 분간해 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리기미는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며느리인 비사리에게 전했다. 비사리가 말했다.

"말들의 머리를 나란히 두고 풀을 먹여 보십시오. 어미 말은 새끼에게 풀을 줄 것입니다."

리기미는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왕은 리기미가 말한대로 시험했더니 어미와 새끼를 구분할 수 있었다. 특차시리국의 왕은 이번에는 뱀 두 마리를 보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해 보라고 시켰다. 리기미는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비사리에게 전했다.



삽화 · 강병호

"고운 천을 펴고 뱀 두 마리를 그 위에 놓으면 부스대는 쪽이 수컷입니다."

리기미는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왕은 리기미의 조언대로 행해 뱀의 암컷과 수컷을 가려낼 수 있었다. 특차시리국 왕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시험을 냈지만 비사리의 지혜로움 덕에 위기를 계속 모면했다. 결국 특차시리국의 왕은 슈라바스티국의 왕에게 슈라바스티국은 지혜로운 자를 가진 현명한 나라라며, 앞으로 호의와

의리를 베풀 것을 약속했다. 슈라바스티국의 왕은 이 소식에 기뻐하며 리기미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었나?"

"그것은 제가 푼 것이 아니라, 제 며느리가 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비사리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후 비사리는 임신을 했는데 32개의 알을 낳았다. 그 알에서는 사내아들이

태어났는데 건강하고 용맹스러웠다. 슈라바스티의 모든 사람들은 비사리의 아들들을 공경했다. 하지만 막내아들만은 그러질 못했다. 막내아들은 철이 없고 항상 남을 괴롭히길 좋아했다.

어느 날 막내아들이 개울가를 지나다 한 남자와 만나게 됐다. 둘은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려 버티다가, 결국 힘이 센 비사리의 아들이 남자를 개울에 빠뜨리고 말았다. 남자는 온 몸에 상처가 났다. 남자는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아차피 너의 힘으로 비사리의 아들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다른 작전을 세우자꾸나."

결국 남자의 아버지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채찍 속에 칼을 숨겨 넣고 32명의 비사리 아들들에게 선물했다. 그리곤 남자의 아버지는 왕을 찾아가 비사리의 아들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 채찍에 칼을 숨겨 두고 매일 지니고 다닌다고 고했다. 이 말을 들

은 왕은 즉시 32명의 아들을 불러 몸을 살렸다.

슈라바스티국은 왕을 친견할 때 칼을 지니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을 어긴 죄로 아들들은 모두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때에 비사리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에 초청해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 32개의 항아리를 비사리 앞에 내놓았다. 아들들의 시신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비사리는 자식의 죽음에 억울해하며, 왕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비사리에게 말했다.

"지금 너의 32명의 아들들은 과거에 소를 훔쳐 서로 나눠 먹었다. 그 소가 지금의 왕이며, 소도둑들이 너의 아들들이었다. 때문에 왕이 까닭 없이 형벌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하고, 나쁜 행동은 삼가야 하는 것이다."

비사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왕과 화해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e0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7**  
-겨자만 한 씨 하나-  
구성·김홍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우수조합원초청 보현사신협  
**대만성지순례 "그곳에 가고 싶다 III"**  
2011. 10. 25 ~ 2011. 10. 29 (4박 5일)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 상담 전우 서일영 010-3527-1037  
상담 차장 정종철 010-2543-1037